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에이즈(AIDS)와 HIV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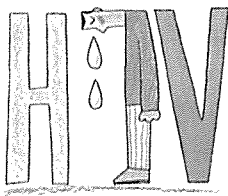
HIV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전파된다.

- 감염자의 성접촉
- 감염자가 사용했던 주사침을 다시 사용할 때
- 감염된 임산부로부터 아기에게 전파(산전, 분만중, 혹은 수유를 통하여)
- 수혈이나 혈액제제를 통해 전파될 수도 있으나 철저한 사전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매우 적다.

HIV에 감염되면

수년간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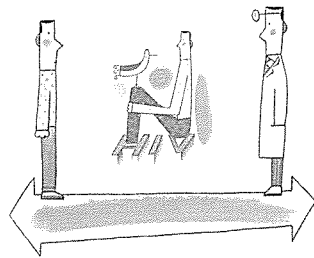
감염이 진행됨에 따라 다음 증상이 나타난다.



-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의 임파선이 부어오름
- 자주 열이 나고 땀이 남
- 이유를 알 수 없는 체중감소
- 계속되는 설사와 식욕부진, 지속되는 피로
- 입안이 험거나 염증이 생김
- 정신혼란이 있거나 기억력이 떨어짐

HIV에 감염된 사람의 대부분은 에이즈로 진행하게 된다. 즉, 면역체계가 파괴되면서 정상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각종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세균에 의한 기회감염에 걸리기 쉬우며, 또한 카포지육종과 같은 악성 종양도 발생할 수 있다.

감염자가 규칙적으로 의사를 만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에이즈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받는다.
- 감염자의 면역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다.
- HIV의 증식을 억제하고 에이즈로의 진행을 지연시킨다.

담당의사는 감염자의 혈액에서 여러가지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그중 CD4 림프구 수치는 감염자 면역기능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검사이다. CD4 림프구 수치가 500미만이면 증상이 없더라도 AZT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며 이는 에이즈의 발병 또는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

AZT를 복용할 수 없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ddI ddC 같은 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 CD4 림프구 수치가 200미만이 되면 주폐포자충 폐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약을 투여해야 한다.

감염자가 담당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면 에이즈관련 질병을 사전에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다. 술, 마약, 담배는 감염자의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해야 한다.

<자료 : 대한에이즈예방협회>